

스크린서 만나는 평화·민주주의 가치

2025 국제평화영화제 26-29일 광주극장 등서

전쟁과 불평등을 넘어서는 '평화의 언어'가 스크린에서 펼쳐진다.

'평화, 우리가 꿈꾸는 전쟁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주제로 한 2025 국제평화영화제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국회의사당, 광주 극장에서 열린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기념해 김대중재단과 대한민국의정회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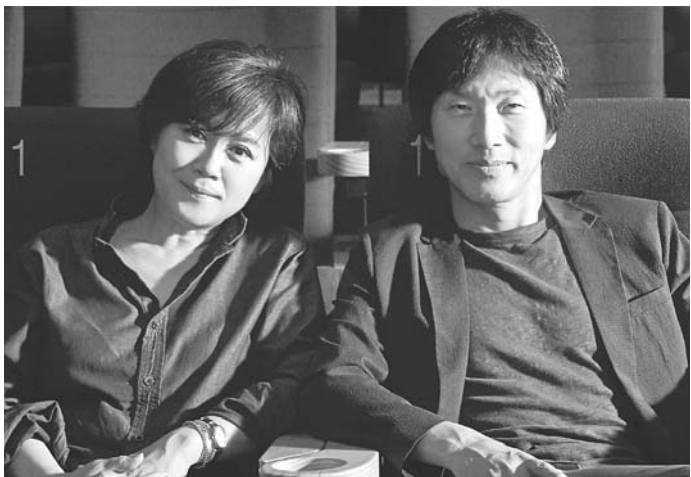
개막식은 26일 오후 2시30분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제13회 김대중 노벨 평화영화상과 특별상이 수여된다.

올해 김대중 노벨 평화영화상은 제작사 명필름의 심재명·이은 대표에게 돌아갔다. 명필름은 '공동경비구역 JSA', '접속', '와이키키 브라더스', '마당을 나온 암탉' 등 상업성과 예술성을 아우르며 평화와 인권, 사회적 연대를 꾸준히 탐구해온 제작사로 평가받았다. 김대중의 정치 인생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김위에 김대중', 청년 창작자 양성을 위한 명필름랩 운영 등 영화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해온 점이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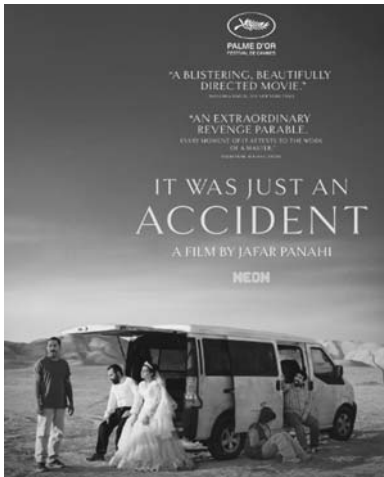
특별상은 박중훈 배우와 유강준 중국 상해영화예술대학 교수가 수상한다. 박중훈은 데뷔 40주년을 맞아 '칠수와 만수', '라디오 스타' 등에서 보여준 인간적 연기와 영화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이 주목받았다. 유강준 교수는 제작자이자 교육자로서 40여 년간 국제 교류와 평화의 가치를 영화로 실천한 공로로 선정됐다.

시상식 이후에는 기념공연과 함께 김동호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지영 감독, 김흥준 한국영상자료원장, 박중훈 배우 등이 평화와 영화의 의미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개막작은 1회 수상자인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 폐막작은 10회 수상자인 김동호 감독의 '미스터 김, 극장에 가다'가 선



2025 김대중 노벨 평화영화상 수상자 심재명·이은 명필름 대표



개막작 '그저 사고였을 뿐'



폐막작 '미스터 김, 극장에 가다'



특별상영작 '공동경비구역 JSA' 리마스터링

개막작 '그저 사고였을 뿐' 등

12개국 30여편 상영

김대중 노벨 평화영화상에

심재명·이은 명필름 대표

정됐다.

'그저 사고였을 뿐'은 우발적 사건처럼 보이는 제복과 달리 체계적 폭력과 억압의 현실을 드러낸 작품으로, 검열과 제작 금지 속에서도 창작을 이어온 파나히 감독의 예술적 저항을 담고 있다.

'미스터 김, 극장에 가다'는 88세에 첫 장편 연출에 나선 김동호 감독의 신작으로, 영화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영화 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비춘다.

상영 프로그램은 27일부터 29일까지 광주극장과 광주롯데시네마 충장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장·단편 극영화와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AI 영상 등 12개국 30여편을 상영한다.

특별상영작으로는 '공동경비구역 JSA' 제작 25주년을 맞아 리마스터링 버전이 공개된다. 판문점을 배경으로 분단의 현실과 인간의 존엄을 그린 이 작품은 명필름의 대표작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한다.

이밖에도 가지지구 전쟁 참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포화 속의 아이들', 실루엣 애니메이션 '프린스 앤 프린세스', 가족 영화 '길 위의 문치', 명필름 30주년 기념 '한국 영화 오마주' 섹션 등 다채로운 상영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27일부터 29일까지 AI기술을 활용한 'AI 크리에이티브 어워즈' 수상작을 포함해 창의적 영상물 30여 편이 무료 상영된다. 상영 기간 동안 전쟁 피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자발적 모금이 진행돼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평화영화제 (<http://www.ipff.kr/>) 홈페이지 확인. /최명진 기자

‘ACC 뉴스트’...지역 예술인 전시 공간 마련

30일까지 참여 작가 공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지역 작가들의 전시 공간 마련에 본격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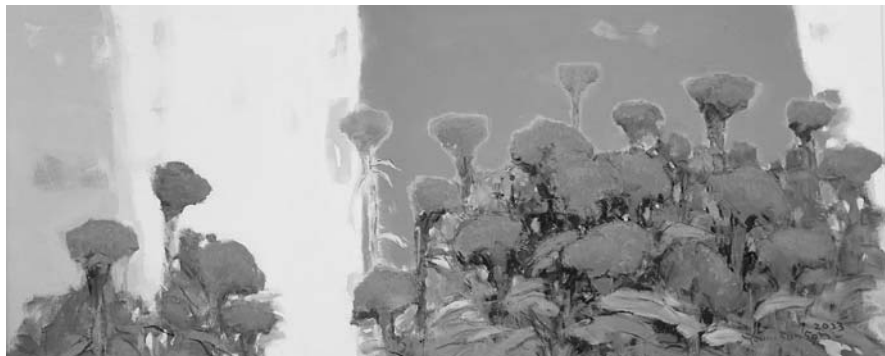
ACC는 오는 30일까지 지역 작가 창작활동지

원 프로그램인 '2026 ACC 뉴스트 (NEWST)' 전시 참여 작가를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뉴스트'는 새로움을 뜻하는 'New'와 예술가 'Artist'의 합성어로,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기획한 지역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ACC는 오는 2026년 1월 지역 예술인을 위한 전시관인 복합전시관을 문화창조원 내 새로 개관해 광주·전남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및 전시를 지원한다. 복합전시관은 약 132㎡ 규모로, ACC관에서 제1차 관람객과 만나는 전시장이다.

이번 공모는 광주·전남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작가(개인 또는 팀)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손영선

계절 빛깔 따라 자연을 예찬하다

손영선 초대전 ...20-26일 도립도서관

60년 작품세계 담은 50여점 회화 선포

자연에 대한 마음을 화폭에 담은 손영선(사진) 작가의 '미술 여행 04년' 초대전이 20일부터 26일까지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대표작 '환희', '맨드라미' 등 50여점이 공개될 예정이다.

그의 작품은 미술평론가들 사이에서 '자연에 마음을 연 화가의 자연예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 김인환 미술평론가는 생전 "그의 그림은 자연에 대한 지극한 숭경심을 담고 있다. 요컨대 그는 자연을 그리는 화가"라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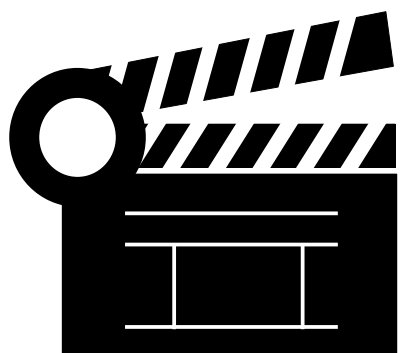
또 김 평론가는 작가의 풍경화가 일상적

자연환경의 단순 묘사를 넘어 색채의 리듬과 감성 표현에 주력해 왔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봄·여름·가을 등 색채가 풍부한 계절 속 작가의 개성은 특히 돋보인다.

남도의 전원이나 해변 포구 현장을 화폭에 담아낸 작가의 그림은 남도 지역 특유의 미술 경향과도 맞닿는다.

한편 손영선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부산 Kart inko 초대작가, 한국예총 자문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전남도 문화상, 부산국제아트페어 작가 대상, 전남·경남 미술인상 등을 수상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환경주일 묵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CBS
Media Group